

# 가깝고도 먼 스마트홈 시대... 삼성·LG, '보안강화' 승부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우려  
보안시스템, 핵심 경쟁력 부상

삼성 '지식 그래프' 기술 확보  
LG '엣홈' 개방형 생태계 결합

국내 우수 기업들이 '스마트홈' 사업 확장을 위해 보안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홈 IoT' 기술은 첨단통신기기(ICT)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 내 기기들을 서로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흔히 '스마트홈'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홈 사용자는 아파트 월패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기기를 통제할 수 있고 외출 중에도 집안 온도를 조절하거나 보안 카메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홈은 인터넷 상용화와 함께 등장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스마트홈 기기 해킹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스마트홈 시장 확장은 지지부진한 모양새였다.

23일 메트로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스마트홈 보안 관련 기업을 각각 인수하는 등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2017년 394억 달러(약 54조7070억 원)에 그쳤으나 2023년 1348억 달러(약 187조1670억 원)로 약 3.5배 이상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8년에는 2316억 달러(약 321조692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英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인수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영국의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옥스퍼드대 교수 3인방이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식 그래프 기술은 데이터를 사람의 지식 기억 및 회상 방식과 비슷하게 저장·처리하는 기술이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싱스'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LG 시홈 이미지. /LG전자

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개인에 맞춰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LG전자, 네덜란드 '엣홈' 지분 인수

LG전자는 지난 3일 네덜란드의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엣홈'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지분 20%는 향후 3년 내 인수할 예정이다.

엣홈은 가전과 IoT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허브 '호미'를 보유한 기업으로, 유럽, 호주,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 엣홈은 자체 개발한 허브와 운영체제(OS)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 제품인 호미 프로는 가전과 5만 개가 넘는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엣홈이 운영하는 호미 앱스토어에는 필립스, 이케아 등 전 세계의 브랜드 제품을 연결·제어할 수 있도록 1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앱)이 등록돼 있다.

LG전자는 엣홈의 개방형 생태계를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씬큐(ThinQ)와 결합해 많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활용 등 기술경쟁 치열

스마트홈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IoT보안 시스템' 등 보안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와 IoT를 접목한 지능형사물인터넷

(AIoT)을 활용한 스마트홈 구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AIoT 기반 스마트홈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패턴을 수집해 학습하므로 유출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삼성 녹스 매트릭스와 삼성 녹스 볼트의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삼성의 10억 대 이상의 제품에 적용 중이며, 7000만 대 이상의 삼성 기기를 관리하고 있다.

LG전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저장·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데이터 보안 시스템인 'LG 쉴드'를 적용한다고 CES 2024에서 공개했다. 또 화이트해커를 활용해 IoT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민관,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등 도입 준비

» 1면 '내년 시교과서...'서 계속

네이버클라우드는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및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운영 체계를 수립하는 등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과 공공에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AI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해외는 아날로그로 회귀중

해외에서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교육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폐지했다. 나아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고

지면 교과서를 사용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등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11점 떨어졌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 일부 나라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실 내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

68개월 27일을 투자했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 나는 투자한다

#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된다